



“불교의 포용적 진보, 국정에 반영돼야”

노회찬 위원장·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본지 좌담’서 제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과 한국 불교 대표종단의 중진 스님이 만나, 진보와 불교의 접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본지는 노회찬 진보정당건설 추진위원장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을 초청해 ‘진보와 불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17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좌표는 다르지만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에 출현 수렴한다는 점에서 진보와 불교는 상통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소통과 화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다. 노회찬 위원장과 법안스님은 계급과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진보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포용적 진보를 추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차별 없는 사회가 공동 목표

보편적 복지 지지 ‘한목소리’

했다. 법안스님은 “불교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종교”라며 “부처님은 당시 인도의 뿌리 깊은 인습이었던 카스트제도에 반대하며 모든 생물은 평등하고 존귀하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폭력적

인 방법의 개혁이나 당대 지배구조의 해체를 주장하지 않고, 지배계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대중적 화합이 부처님의 궁극적인 포교론이었다”며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의 회복을 주문했다. 노회찬 위원장 역시 “누구나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는, 차별과 억압을 없애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사상적 밑거름”이라며 “진보와 보수가 정책으로 정당당당하게 경쟁하면서 국가발전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나름의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법안스님은 “부처님같이 살려면, 부처님이 그랬듯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가장 연약한 존재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참된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회찬 위원장 또한 “불교에나 진보에나 더욱 과감한 현실참여가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아픔 속으로 몸소 들어가 이들의 고통을 체험해야 보다 진실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보편적 복지의 이론적 근간은 불교의 무주상보시와 대자대비심에 있다는 데 동의하고 보편적 복지의 정책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좌담은 지난 1일 불교신문사 사장실에서 이뤄졌다.

“결사추진본부는 ‘작은 총무원’ 되어 달라”

5일 현판식...곧 1차 회의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가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추진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본부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결사라는 언어에 관심을 갖고 살아온 인연으로 본부장 제의를 수락하게 됐다”며 “자성과 쇄신을 향한 총무원장 스님과 집행부의 원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의 노력으로 결사의 커다란 그림은 그려진 만큼 사부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부의 총재를 맡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의 동력을 배가시키고, 그간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종단 기구들을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종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사추진본부를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사진은 축하 떡 절단식. 왼쪽부터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종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법스님만이 결사를 성공시킬 수 있으리란 확신에 본부장으로 중용했다”며 “기존의 중앙종무기관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작은 총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와 함께 “결사추진본부가 불교중흥의 토대가 되도록 인력과 재정 모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곧 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및 결사위원 위촉 등 추가 인

“3차 결사 초점은 나눔”

종무원을 자비행 솔선수범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자비행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금강경> 독송 제2차 100일 정진을 회향한 지난 5일 3차 정진 계획을 발표했다.

3차 정진은 등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자원봉사 등 나눔결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먼저 오는 14일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 있는 100여 가구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쌀과 수박, 점심공양을 대접한다. 점심공양 후에는 동국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무료진료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불우이웃을 위한 보시금은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스님과 재가 종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뇌성마비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도 추진하고 있다. 장영섭

“무명 끊으리”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 말라...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여의면 저절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대반열반경>中. 지난 5일 한국간화선연구소와 전통불교문화원이 주최한 ‘간화선 집중수행’에 참가한 불자들이 정진하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2면

공주=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10만부 추가 발행

알림

불교신문 m.ibulgyo.com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불교신문이 모바일 웹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등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m.ibulgyo.com’을 입력하면 ‘모바일 불교신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불교신문은 스마트폰 환경에 맞도록 구성돼 편리하며, 최신기사와 인기기사, 사진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 QR코드’를 찍어 손쉽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신문사

지면안내

이전 소셜네트워크 시대 3면

총무원장 자승스님

- 취임 600일 특별인터뷰 5면

소설가 김연수의 불교이야기 8면

형제자매 스님 누가 있나 9면

부처님이 먼저 ‘윙크’ 20면

www.naejangsa.org

호남의 금강, 관음성지...

내장사

백제 무왕 37년 영은조사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인 희묵스님께서 조선왕조실록을 무사히 지켜낸 전통문화의 계승처입니다.

일본침탈 후 왜색불교에 꺼져가는 조계종의 종풍을 진작시킨 조계종의 초대종정인신 박한영스님과 근대 최고의 선지식인 백학명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조계종의 가풍을 세운 곳입니다.

내장사는 불교발전과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지 지선 합장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회차	대상	인원	기간
제1차	초등학교생(효사랑 캠프)	40명	7월 28일(목)~ 30일(토) 2박3일
제2차	중·고등학교생(효사랑 캠프)	30명	8월 11일(목)~ 13일(토) 2박3일
제3차	일반인(나를 찾아 나선 길!)	30명	8월 26일(금)~ 27일(토) 1박2일



내장사 템플스테이 ☎ 063-538-7008

대웅전 협시보살 조성 만등불사

●회향 : 2012년 9월 1일 토(음 7.15)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590번지
Tel. 063-538-8741 Fax. 063-538-7414